

國際 大담會의 總會를 다녀와서

金 周 範*

出發하는날 이른 아침 서둘러서 택시를 타고 空港으로 向하는 車속에서 大統領逝去에 對한 엄청난 뉴스를 듣고는 오늘 出發하기는 어렵겠구나 하면서 空港에 到着하였다. 戒嚴下에 空港出入은 統制되어 甬성거리의 속에서 時間을 보내다가 12時경에야 手續이 始作되었는데 特히 官用旅券은 別途 確認을 하여 時間이 더 걸렸으나 多幸히 出發할수 있었다. 飛行機속에서 내 나라를 떠나면서 心情이 錯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28日 새벽에 뉴델리에 到着했는데 더운 기운은 마치 熱帶에 온것같은 느낌을 주었다. 이곳 空港施設은 우중충한것이 마치 시골驛에 온것 같았으며 職員들도 깔끔하지못한 겉계단 얼굴들이었고 女人们은 사리를 걸쳤는데 배짱을 드러내 놓은것이 珍風景이 었다. 宿所는 會議가 열리는 아쇼카에 定하였고 먼저 わけ신 産業基地開發公社 安社長任계 到着人事를 드리였다. 이번 會議에 우리나라 參席者는 10名이나 되었다. 이런일 저런일에 대한 환담으로 잠도 제대로 못자고는 會議參加 登錄을 마쳤다. 오늘은 日曜日 Dry day라하여 슬없는 날로서 麥酒조차 팔지않았기 때문에 물(mineral water)로 代身목을 축이었다.

29日 國際 大담會 創立50周年 記念을 兼한 總會라 하여 더욱 뜻깊은 開會라서 農林相, 에너지相等이 나와서 祝辭를 하였다. 參席人員은 約 900名程度였는데 印度人이 211名으로 제일 많고 다음이 佛蘭西가 111名, 美國이 64名, 日本이 24名, 蘇聯이 6名 등의 順으로 印度를 除外하고는 富裕한 나라순으로 參加人員이 많았으며 大部分이 夫婦同伴이었다. 晚餐은 會議場밖 野外풀場을 中心으로 갖었는데 역시 술은 없었고 (Dry day) 주스로 代身하였다.

30日에는 우리나라의 秦炳益博士가 大清담에 對한 콘크리트와 土堰堤接觸部에 對하여 發表하였다. 發表者가 많아서 時間配當 5分이라 하다는 것도 있었다.

31日에는 아그라(Agra)觀光이 있어 一行 6名아 빠스로 旅行 했는데 途中에 車가 서기에 물어보았더니 다른州로 들어가기 때문에 道路通行稅를 내야한다고 한다. 山하나 보이지 않는길을 南쪽으로 (200km) 4時間동안 달렸다. 道路의 높이가 1.0m以上 높은것으로 보아 雨期에는 아마 꽤 많이 浸水가 되는것 같았다. 印度의 代表的인 遺蹟이라는 Taj Mahal을 보았다. 外廓建物들은 赤褐色砂岩으로 흰 대리석을 適當히 配置하여 築造하였고 廟堂은 하얀 大理石에 玉돌로 꽃을 놓아 裝飾한 것으로 거의 모두가 만들어 졌으며 廟域의 크기는 100×100m의 大理石台盤이다. 이곳에서 約 3km 떨어져 있는 王宮도 돌아 보았다. Taj mahal은 王妃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어 王이 22年동안 이렇게 華麗하게 지어 놓고 恒常 王宮에서 처다 보았다고 한다. 王宮의 規模나 彫刻으로 볼때 印度란, 果然 大國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11月 1日의 主題에 對한 檢討는 1976年 6월에 美國에서 崩壞된 TETON DAM의 事故原因및 分析에 對하여 著名한 분들이 質問하고 열성있는 答辯으로 討論의 絶頂을 이루었다. 그 內容은 이미 冊을 통하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內容인지는 이내 알수가 있었다. 여기서 또 한가지 느낀것은 말도 잘 해내야겠지만 잘 들을줄도 알아야 되겠다는 느낌이들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英語, 佛語를 다 잘하는 사람들도 相當數 있었다. 그것은 名札에 빨간색과 파란색을 함께 칠한것을 단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알수가 있었다. 저녁에는 民俗舞蹈이 있었는데 귀걸이, 코걸이에 발목걸이까지하고 춤을 추는데 樂器는 피리, 북, 현이 있고 노래는 念佛을 외우는것 같이 지루한데 춤은 얼굴의 表情이 重點이고 손발은 節度가 있는 춤인데 特히 발목걸이가 방울이 많이 달린것이라 그 방울소리가 멋이 있었다. 낮에 時間을 쯤내어 國際灌溉排水 委員會 事務所를 訪問하였는데 大部分退勤들을 했으나 마침 幹

*農業振興公社 試驗所 土質擔當役

事 한분(B.C. GARG)이 남아있어 몇마디 이야기를 나누고는 圖書室을 보고 나왔다. 이거리는 外國公館들이 많이 있는곳이더 中共旗가 더지 않은곳에 나부끼고 있었다. 宿所까지는 멀지 않길래 넓은 거리를 걸었다. 걸으면서 떠나기前 소양교육때 들은 이야기가 떠올라 或시 北韓사람들이 나타나지나 않나하는 조바심을 하면서 宿所까지 오니 가뜰이나 더운터에(32°C) 緊張한 탓인지 옷이 흠뻑 젖었다. 내가 공연한 걱정을 할것이 아닌지?

2日 總會閉會式에서 다음 總會를 브라질에서 할 것을 宣言하고 그 동안 애쓴사람들에게 感謝狀을 授與하고 끝을 마쳤다. 나는 그동안 모은 參考資料를 郵送하였고 저녁때 送別宴에서는 여러가지 民俗劇, 舞蹈, 묘기 등을 여러개의 舞臺에서 하였는데 人形劇과 물그릇을 열個人 垂直으로 머리에 얹고 춤을 추는 場面은 불만 하였다.

3日은 現場見學旅行을 떠나는 날로서 旅行길 차비에 바빴다. 우리 一行中 한분은 特別코스인 싱가포르, 다섯분은 네팔코스로 그리고 나하고 大林産業의 李課長이 8코스인 印度南쪽을 向하여 떠났다. 空港에서 飛行機를 기다리는데 豫定이 取消되었다면서 印度委員會側에서 버스를 내어주어 호텔로 다시 들어왔다. 가까운 하루의 旅程을 잃어 버렸으니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8코스 一行中에서 代表한분이 (카나다인 LAROCQUE) 이런식으로 見學旅行을 한다면 取消하고 歸國하겠다는 意見을 모아 交渉한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는 確約을 받았다. 이 會議中에서 한 獨逸人의 말이 印度에서는 旅行을 取消하고 選拂을 받는데는 至極히 어렵고 받는다 해도 約 6個月은 걸려야 된다면 強行하는 便이 낫다고 하였다. 밤늦게 來日 틀림없이 11時에 出發할수 있다는 見解를 듣고는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TV를 보았다. 만화영화인 갈리버 旅行記였다.

4日 空港에 나가 手續을 마치고 自動體重計量機가 있어 무게를 달았더니 2kg나 줄었다. 그동안 잘 안된 일이있어 몸시 시달림을 받았더니 그리 되었다 보다. 드디어 飛行機는 離陸하였다. 南쪽을 向하여 날으는데 드넓은 平原에는 道路, 鐵道및 水路 등이 거의 곧게 한없이 뻗어 있었다.

河川兩側에 푸른 들이 보이고 海岸에서 좀 떨어진 곳에는 누렇게 풀한포기조차 없는 堤岸高原이 平準하게 펼쳐져 있다. 자그마한 貯水池들도 많이 보이는데 滿水面積에 比하여 堤塘길이가 긴것 같아 마치 우리나라의 慶州近處에 가면 논 가운데 만들어

진 貯水池와 같다. 큰 河川周圍는 汎濫池인듯한 黃土色地帶가 大端히 넓게 퍼져있다. 마을近處에는 放射線으로된 道路를 따라 耕地整理도 放射線狀으로 되어 있는것이 異彩로였다 .

우다이퍼(Udaipur)空港에 到着하여 우리 一行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英語使用 그룹과 佛語使用 그룹으로 나뉘었는데 英語使用側에는 獨逸人, 브라질人, 스웨덴人, 아르헨티나人, 伊太利人, 英國人, 카나다人 등으로 되었는데 카나다人의 大部分은 佛語使用 그룹에 끼었다. 이곳 우다이퍼는 乾燥地帶인것 같았다. 砂漠에서만 자라는 풀들이 산을 뒤덮고 있었다.

이곳에서 博物館과 Jagdish 寺院을 求景하였는데 遺蹟地觀光客 때문에 생긴 乞人들이 줄을 이어 求乞하고 있었고 寺院境內에는 소와 羊等이 排泄한 동으로 뒤범벅이되어 氣分이 좋지 않았지만 彫刻品の 規模나 纖細함이 이氣分을 씻어 주었다.

5日 우다이퍼를 出發하여 오우랑가반(Aurangabad)에 到着하였다. 여기도 平原인데 周圍에 玄武岩으로 이루어진 얇은 산이 떠돌듯 둘러 쌓여 있었다. 호텔에 들어가는데 歡迎하는 뜻으로 꽃을 목에 걸어준다. 午後에 Jaykwadi Project에 가서 Paithan dam을 見學하였다. Godavari河川 兩側으로 蒙利地가 있는데 무려 278,000 町步나 되며 水沒面積이 35,000町步, 貯水量이 28億 5千萬 m^3 , 堤長이 10.2km, 堤高가 37m로 水沒池內 95個 마을의 75,000名의 農民은 安全한 곳에 移住 시켰다고 한다. 이 댐 餘水吐堰體에는 檢査孔이 있어 나로서는 처음으로 이 檢査孔으로 들어가 보았는데 最大 漏水量은 $0.064 m^3/sec$ (堰體길이 610m)라 한다. 이곳에서 揚壓力測定을 하고 있었는데 計器에 $2.8kg/cm^2$ 를 堰體앞쪽에서 나타냈고 下流側에서는 $0\sim 0.2kg/cm^2$ 를 나타내어 揚壓力이 堰體에 미치는 나쁜 影響은 없는것 같았다. 檢査孔內는 石灰分 石筍이 곳곳에 허영케 나타나 있었다. 見學을 마치고나니 무척 늦었다. 現場事務所에서는 우리들이 찾아온것을 感謝히 여긴다며 薔薇 한송이씩 주었다. 宿所에 돌아오니 또한 薔薇송이에 잘 자라는 인사 죽지가 베개위에 놓였는데 피곤한 中에도 아늑한 氣分이 들었다. 밤 12時나 되었을까 곤히 잠든 잠을 깨우길래 일어났더니 主人이 주는 膳物이 라면서 바구니에 과일을 담아 이쁘게 포장해서 준다. 시원하게 꿀한개를 까먹고 다시 잠들었다.

6日 일찍 出發하여 Ajanta Cave로 向하였다. 北쪽으로 4時間을 갔는데 우리나라 鐵原平野와 비슷

한 곳이다. 물이 豊富한 곳에는 植物이 茂盛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주로 사탕수수와 綿花였다. 옥수수와 수수도 있었다. 마을에는 우물이 大概 한군데만 있으며 이곳에서 물을 길어다 먹고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흰옷에 흰모자를 거의 쓰고 있었다. 아잔타(Ajanta)에 到着하니 觀光客이 많았다. 地帶가 좀 높은 곳이며 玄武岩絶壁에 굴이 즐비하게 있는데 29個나 되었다. 그 中에서 우리가 본 굴은 겨우 6個인데 原岩石에서 돌을 쪼아낸 남은 部分들이 훌륭한 藝術品이며 天井과 壁에는 壁畫까지 지금도 거의 鮮明하게 알아 볼 수 있게 남아 있다. 굴 하나의 크기는 큰것은 50m×20m 程度로 거의 對稱을 이루었는데 이것들이 紀元前 200年에서 紀元後 600年 사이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어떤것은 소리를 내면 異相스럽게 울려 퍼지는 굴도 있었다. Elura라는 곳에는 單一岩石으로 彫刻한 것으로는 세계에서 제일크다는 Kailasanatha 寺院을 보았다. 西紀 757年에서 79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크기가 83×46×36m의 巨大한 彫刻品이 있다. 여기서 파낸 돌은 實로 85,000m³이나 된다고 한다.

7日 아침 일찍 서둘러서 봄베이로 向하였다. 南쪽으로 내려오면서 제법 산다운 山이 눈에 띠기 始作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亦是 高原이었다. 봄베이에 到着하여 市内 觀光에 女子案内員이 説明을 하는데 獨逸人の 質問이 거리에서 소매치기를 當하던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 그런點에 對해서는 絶對安心하라고 한다. 自己가 美國에 갔을때 그곳에서는 저녁 6時以後에는 거리에 나가면 危險하니 나가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이곳 봄베이에서는 밤에 혼자 나가도 安心할 수 있고 萬一 잃어버린 物件이 있다면 다시 그곳에 가보면 그대로 있을테니 試驗해 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學識이 높은분들 같은데 印度를 잘살게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해주면 고맙겠다고 하여 한사람이 印度의 거리를 混雜하게 하는 소를 잡아 먹는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니 그건 絶對로 안됩니다. 소는 印度에 있어서 聖스러운 動物(Holy Animal) 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 다른 方法을 摸索해 달라고 하였다. 봄베이 博物館에서 特異하게 본것은 옛날에 쓰던 各種武器들이다.

아주 희한한 것들이 展示되어 있는것으로 보아 무척 싸움을 좋아 했으나 보다. 간디가 살던 집에도 가 보았다. 아주 儉素하게 살았으며 代表的인 물레가 그의 방에 있었다. 밤에는 案内員의 말대로 거리에 나가 椰子水를 오래간만에 마셨다. 越南이 亡

하기 前해인 1974년에 맞은후 처음이라 무척 맛이 있었다. 그리고 뒤틀목같은 곳인데 그리 무서운줄을 모르겠고 택시운전수가 바가지料金を 내라기에 실랑이를 하니 지나가는 行人이 그걸 타지말고 배스를 타고가도록 권고를 받았다. 택시 運轉手도 미안한지 제차를 이용하지지요 라고하였다.

8日 水力發電所 工事場으로 가기 爲하여 서둘러서 GOA로 떠났다. GOA空港에 到着하여 짐을 찾으니까 가방이 눈에 띄이질 않는다. 甚히 당황했다. 나 혼자뿐인줄 알았더니 나외에 몇사람이 짐이 안보이었다. 걱정은 되었으나 봄베이 호텔에 있을것으로 보고 인도위원회 職員에게 確認해 줄것을 附託하고는 茫茫한 아라비아해가 보이는 海岸에 宿所를 定하여 疲勞를 풀었다. 이곳 GOA는 基督敎가 印度로 처음 宣敎된 곳이라 큰 敎會가 3個나 있었다. 그 規模가 엄청나게 큰것에 또한번 놀랐다. St. Catherine 修女院에 가니 入口 陳列裝에 우리나라에서 보낸 人形과 지게, 표주박等이 있었다. 반가운 속에서도 좋은것이 못되는 物件을 보내어 陳列되게 한것이 좀 아쉬웠다. 이곳에서는 求하기 힘들던 칼라 필름 한통을 샀으니 이제 安心하고 寫眞을 찍을 수 있겠다.

9日 KALINADI HYDRO-ELECTRIC PROJECT 로 向하여 새벽에 떠났다. 地方道路는 거의 鋪裝은 되었으나 一次線이라 맞은便에서 車가오면 避해 주어야 하므로 約 200km가는데 4時間이나 所要되었다. 現場까지는 繼續 오르막 길 이었는데 標高로는 600m 程度였다. 現場事務所에 到着하여 브리핑室에 들어가 計劃說明을 들었는데 이곳에서도 地質關係에 對하여 關心들이 많았다. 이計劃은 貯水池가 10個所나 되는 巨大한 計劃이다. 그中 하나인 Supa댐을 床堀과 더불어 一部 콘크리트施工도 하고 있었다. 至今까지 이나라에서 보아온 岩石은 玄武岩, 砂岩및 紅土(라테라이트) 였는데 이곳은 磁鐵質이 基盤岩이고 約 10km 떨어진 곳에 훌륭한 花崗岩이 産出되어 이花崗岩을 콘크리트用 骨材로 쓰기 爲하여 容量 200t/hr,과 300t/hr차리 岩石粉碎機로 골재를 生産하여 堰地點까지 케이볼카로 運搬하여 이것을 6°C까지 冷却水로 冷却을 한후 15°C以下가 되도록 混合하여 使用하고 있었다. 많은 勞務者들이 바닥 掃除를 하고 있었는데 勞賃은 男子는 10R (600원) 女子는 5R(300원)를 받고 있었으며 좀 잘하는 勞務者는 20R(1200원)를 받고 있었다. 現地 호텔에서 파는 麥酒는 한병에 14R(840원) 이고 飲料水는 啤酒에 7R(420원)나 하니 比較가 될것이다. 이댐에

서 發電所까지의 落差는 400m이고 生産되는 電力은 910MW나 된다. 2段階計劃에서 278MW를 3段階에서 128MW,로 그 總合計는 1,316MW의 電力을 生産하는 計劃이었다.

분주하게 많은것을 보느라 現場에서 18시에 出發하였다. 부지런히 달려서 오는데도 지루했다. 西洋人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지루함을 달래었다. 宿所에 到着하니 23時 가까이 되었다. 實로 바쁜 見學의 날이었다.

10日 우리 8코스의 見學旅行은 이제 끝나서 봄베이로 다시 가기 爲한 차비에 바빴고 그동안이나마 헤어지기 섭섭하여 名脚을 주고 받으며 다음번에는 브라질에서 總會가 있는데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며 미리 人事들로 분주했다. GOA를 떠나 봄베이의 먼 저번 宿所로 와보니 잊어버렸던 내 짐이 기다리고 있었다. 참 반가웠다. 歸國 飛行機 豫約을 우선 서둘렀다. 來日午後 여섯시 香港行이 있다면서 豫約해준다. 긴 한숨을 내쉬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왔다. 入國비자 滿了日이 來日까지 이기때문에 더

걱정되었던 것이다. 저녁에는 마지막 남은 獨逸人 4名과 伊太利 아주머니와 그의 딸과 저녁을 같이 하고는 離別의 握手을 나누었다. 그들은 새벽 1시에 떠나고 말았다. 나 혼자만 남은 셈이다. 다음날 10시에 宿所를 나와 飛行場으로 나갔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出國手續을 하는곳이 없었다. 案内양에게 물어보니 택시를 타고 臨時飛行場으로 가라고 한다. 허둥지둥 맡겨놓은 짐을 찾아 가지고 그곳에 가보니 假建物인데 施設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짐을 맡겨놓을테가 없어 멍청하게 앉아 짐을 檢査할때까지 기다릴수밖에 없었다. 出國手續에서 짐 檢査가 까다로웠다. 大概 나가는 짐은 別로 檢査를 하지 않는데? 좀 異常한 느낌이 든다 어쨌든 19時나 되어 飛行機가 離陸했다. 安堵의 한숨이 나오면서 시원 설설했다. 옆자리에는 UN기구에서 일한다는 캐나다女인이 泰國까지 간다며 술만 훌쩍훌쩍 마시고 있었다. 켈커티의 은가투를 뿌려놓은듯한 夜票을 내려다 보면서 그 큰 印度땅을 떠났다.

會員 諸位께

會員께서는 住所變更이나 職場移動等 特記한 事項이 있을때는 電話 또는 書信으로 學會에 連絡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學會와 會員間에 諸般事項에 蹉跌이 없도록 協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03

連絡處： 서울特別市 江南區 驛三洞 山 75-561

韓國農工學會 事務局 貴中

電話： 52-3627番